

# 우리나라의 축산물시장 II

평가사업본부 창의사업팀 차장 김성호

10월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축산물시장이 서울 3곳(마장동, 가락동, 독산동), 인천(가좌동), 대전(오정동), 광주(양산동), 전남(예양리), 전북(산외면), 부산(구포동), 경남 2곳(주촌면, 어방동) 등 8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서울 및 인천지역 축산물시장의 유통실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시장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서울지역 가락동 축산물시장

**발전과정** 1963년 종로구 송인동에 있던 우성산업 도축장이 마장동으로 옮겨오고, 도축장 주변에 소의 내장과 돼지의 부산물을 판매하는 상점이 점차 늘어나면서 마장동 우시장(마장축산물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당시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매매가 이루어졌고, 하루 최대 소 250여 마리, 돼지 2,000여 마리가 도축되었다. 1998년 도시개발로 이 일대에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 35년간 운영되었던 도축장이 문을 닫았지만 축산물시장은 계속 남아 수도권 육류유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시장 중앙통로에 지붕을 씌우고, 전기·통신시설, 하수관 등을 정비하여 시설을 개선하였고, 길을 넓히고 소방도로를 만들어 화재에 대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도로와 주차공간이 좁은 편이다. 2012년 현재,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약 50~60%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산물전문 도·소매 시장으로, 연간 이용객 수는 약 200만 명, 종사자 수는 약 2만 명에 달해 단일 육류시장으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매시간 배송되는 축산물과 수입육을 취급하며, 원산지과 가격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가격은 대형마트 거래가보다 20~30% 저렴한 편이다. 상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고객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3정 운동(정품·정량·정찰제)을 실시하고, 반품과 교환이 가능한 소비자센터 운영, 무료시식회, 명절맞이 합동세일, 축산물시장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 중에 있다.

**일반현황**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전체면적은 약 3만 평(11만 6,150㎡) 규모이며 2011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점포형태별 종사업체 수는 1,927개소에 이르며 서울지역 총 9,405개소 중 20.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쇠고기 유통물량의 44%를 담당하고 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대표적인 상인회로는 '마장축산물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회장 이명근)이 있으며, 약 1,200여 명 회원수를 보유하고 축산물시장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지역  
가락동  
축산물시장

- ▶ 1985년 6월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이 들어서고 2년 후인 1987년 5월 21일 개장한 가락축산물직판장은 188개소의 축산물 판매업소를 보유한 축산물 시장임.
- ▶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맞은편의 축산물 직판장 건물에 자리한 직판장은 2층 건물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옥상에 '가락축산물 직판장상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장 활성화에 노력함.
- ▶ 2011년 2월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이 음성으로 이전하면서 운송비 증가와 거리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고객들의 발길 또한 줄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음.
- ▶ 현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 축산물공판장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3차에 걸친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현대적인 축산물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가락동 축산물시장은 점포형태별 종사업체 수는 356개소에 이르며 서울시 쇠고기 유통 물량의 5.7%를 담당하고 있다. 상인회(회장 김상익)로는 약 188여 명 회원수를 보유한 가락 축산물직판장상인협의회가 있으며 축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지역  
독산동  
축산물시장

- ▶ 1973년 '협진' 도축장이 개설되고, 그 주변 부지에 부산물 등 축산물 상가가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음.
- ▶ 하지만 '협진' 도축장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쇄가 되고, 그 후 원료육에 대한 수급 어려움과 상징성을 잃어 점차 규모가 축소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전형적인 도축장 중심 판매업소 밀집지역으로써의 기능을 잃음).
- ▶ 이러한 축산물시장으로써의 불완전한 기능으로 인해 아직 전통 우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법)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 또한 한 개의 권역에 광범위하게 정착된 시장이지만 4개의 건물로 구획되어 각각의 시장 상인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 연합회는 개설 계획만 한 상태로(2011년) 본격적인 통합 시장 상인회의 출범은 근 시일 내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4개 상인회 또한 존재만 할 뿐 특별한 기능은 없음).
- ▶ 이에 따라 관할인 금천구청에서도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략적인 4개 권역의 상인회에 대한 정보만 파악을 하고 있음.
- ▶ 향후 4개 상인회에서 통합 시장 상인회를 출범하여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독산동 축산물시장은 점포형태별 종사업체 수는 347개소에 이르며 서울시 쇠고기 유통 물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인회(회장 문현국)로는 약 197여 명 회원수를 보유한 협진시장지하1층상우회가 있으며 축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천지역 가좌동 축산물시장

- ▶ 1963년 도축장(삼성식품)이 들어선 이후, 하나둘씩 정육점이 생기면서 1982년에 50~60개 정육점이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인천시로부터 '축산물 재래시장' 명칭을 얻음.
- ▶ 인천 가좌동 축산물시장은 서울 마장동 시장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전국으로 축산물을 도매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현재 '인천축산물백화점'을 비롯하여 골목골목 형성된 정육점 등 130여 상점이 축산물 도소매업 운영 중.
- ▶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시장손님이 줄고 있는 형편으로 시장경제 활성화가 상인들의 가장 큰 고민임.

가좌동 축산물시장은 점포형태별 종사업체 수는 282개소에 이르며 인천시 최고기 유통물량의 30.8%를 담당하고 있다. 상인회(회장 장영태)로는 약 130여 명 회원수를 보유한 인천축산물시장 상인회가 있으며 축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대전지역) 오정동 축산물시장, (광주지역) 양산동 축산물시장, (전남지역) 예양리 축산물시장, (전북지역) 산회면 축산물시장, (부산지역) 구포동 축산물시장, (경남지역) 주촌면 축산물시장, (경남지역) 어방동 축산물시장 등이 있다.

#### 축산물시장 활성화 방향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2006년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2011년 마장동축산물시장 역사박물관 건립이 중소기업진흥청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장 여건을 개선코자 성동구 및 서울시 지원으로 주차장 약 150면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 수익사업으로 '고기익는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축산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 단일법인 설립을 토대로, (2)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용으로 통합된 이미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3) 고기익는 마을처럼 정육점형 식당을 시장 내에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4) 소모성 부자재 공동구매, 부산물공동작업장 설치, 생협·수제협공동처리시설 설치 등 사업다각화로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내 통로를 지속 정화하여 소비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기능을 활성화하고, 농협·대형마트 등 대형기업과 경쟁가능한 중소기업체 통합형태의 패커(packer) 형태로 역할모델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축산물시장이 갖춘 역사와 여건을 두루 살피 축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축산물 관광명소로 육성해보자. **유망성**